

# 복구, 역점 공약 1천309억 원 규모 '항구적 안전 도시 조성' 탄력

광주 복구(구청장 문인)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 위기 대응 항구적 자연 재난 안전 도시 조성정책'이 순항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복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공모'에 '첨단 산업 단지 1단계'가 선정돼 사업비 '총 346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첨단 산업 단지 1단계는 지난 2020년 8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국지성 집중호

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다.

이에 복구는 민선 8기 역점 공약인 항구적 자연 재난 안전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첨단 산업 단지를 행정안전부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대상지로 건의했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광주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 346억 원은 '하수암거(0.6km)'와 '우수관로(1.3km)' 정비 등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투입돼 첨단 산업 단지 1단계 일원의 침수 피해 우려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첨단 산업 단지 공모 선정에 따라 복구 도심 침수 예방 대책은 기존 ▲문흥동성당 일원 ▲복구청 사거리 일원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서방천 일원 ▲공구의 거리 '하수도 중점 관리'를 더해 '총 6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6개 사업 규모는 ▲우수저류시설 624억 원(3개소) ▲하수도 중점 관

리 339억 원(2개소) ▲재해 위험 지역 정비 346억 원(1개소) 등 '총 1천 309억 원'으로 주요 침수 우려지 6곳 전체에 대규모 예산 투자가 계획돼 있어 복구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집중호우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항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앞으로 6개 침수 예방 사업이 계획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 김이강 서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차기 상임회장 만장일치로 선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제6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서구는 최근 광주 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에서 열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이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차기 상임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출범했으며 전국 33개(광역시 3개, 기초 30개)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김이강 차기 상임회장은 "광주 서구에서 지난 2년간 주민들과 함께 실현해 온 내결에 따뜻한 생활정부, 착한도시 서구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9일 이재준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 16개 회원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서구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결에 생활정부'를 주제로 ▲바로문자하랑께 신속·정확 행정 ▲공직 친절도 대폭 향상, 마을의 미인 캠페인(미소피며 인사하기) 친절문화 확산 ▲마을 BI(Brand Identity) 등 전국 유일의 18개 동 브랜드화 ▲배움으로 잇는 세컨드(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음악으로 잇는 마을합창단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착한도시 서구'의 구정방향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가영 기자

##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서 청년축제 개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청년들이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축제가 21일 백운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이 주최하고 남구 청년네트워크에서 주관한 남행열차 축제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구청과 남구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축제 개최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 관내 청년들을 위한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번 축제의 주제인 남행열차는 남구청년 동행 열차의 줄임말로, 관내 청년들이 축제 참여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진솔한 목소리를 공유하면서 미래 삶을 위한 꿈과 목표 달성까지 이루기를 희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관내 청년들이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축제가 21일 백운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관내 청년들이 실제 경험했던 다양한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경연을 펼치는 '패배를 넘어' 코너가 이어진다. 2부 청년 스포크 마당에서는 거리공연을 비롯해 레트로 게임이 축제의 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이성 청년간 짝을 찾아 떠나는 '나는 SOLO 청년'과 DJ 및 댄스팀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행사장 주변에서는 청년 포차와 청년 정책 홍보 부스를 탐방하는 도장 찍기 여행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인생네컷과 음료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정희태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 충장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회(위원장 선종철)는 최근 베트남 칸호아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단인 충장동 마을사랑채를 방문, 전통 한옥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 동구, 베트남 칸호아성 대표단 방문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 충장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회(위원장 선종철)는 최근 베트남 칸호아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단인 충장동 마을사랑채를 방문, 전통 한옥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국제특수목적마이스진흥회(회장 이장주·ISPA) 소속 베트남 대표단이 문화·예술·관광·축제 국제 협력 교류 활성화를

의를 위해 광주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베트남 대표단은 동구에서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면 중 전통 한옥으로 만들어진 충장동 마을사랑채를 눈여겨보고 방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장동 마을사랑채는 1943년 건립된 전통 한옥을 리모델링한

마을 거점 공간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소해 주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주중뿐 아니라 야간·주말·공휴일에도 개방하고 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전통 공예강좌는 수강생 모집공고를 올림과 동시에 문의가 폭주하고 모집이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유빈 기자

## 광산구 첨단1동 지사협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도입

광주 광산구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애, 이하 지사협)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을 도입했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은 AI(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하는 돌봄서비스로, 주 1회 AI가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등 안부를 묻고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상자에게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담당자에게 신속히 알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사협은 고령가구가 겪는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80세대에게 케어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케어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박순애 지사협 위원장은 "1인가구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광주 광산구 통합돌봄' 안전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건양대	사	충남	단독		연세대(미래)	사	강원	단독	유지*
경남대	사	경남	단독		영남대-금오공대	사·국	경북	연합	
경북대	국	대구	단독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사	초광역 <sup>2)</sup>	연합	
동명대-신라대	사	부산	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	사	전북	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사	전남	연합		인제대	사	경남	단독	유지*
동아대-동서대	사	부산	연합		전남대	국	광주	단독	유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사	초광역 <sup>1)</sup>	연합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국공사	경남	통합(연합)	
대구한의대	사	경북	단독		충남대+한밭대	국	대전	통합	
목포대	국	전남	단독		한남대	사	대전	단독	
순천향대	사	충남	단독	유지*	한동대	사	경북	단독	유지*

1) 대구-광주-대전 / 2) 울산-경남 / \* '23년 본지정 평가 미지정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 유지 결정  
 ■ 국립 일반대 / ■ 사립 일반대 / ■ 전문대